|  |  |
| --- | --- |
| **시놉시스 최종본** | |
|  | |
| **작품명과 장르** | 작품명 라케시스:운명을 훔치는 자(가제), 장르는 모험 판타지 |
| **배경 스토리** | <태초에 세상은 인간을 낳았고, 인간의 막연한 믿음이 신을 낳았다. 신의 숙명은 인간을 관장하고 그들의 믿음에 응해주는 것이니 그 숙명을 반하는 자는 신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신계에 사는 신들에게 전해지는 구절.  <태초에 세상은 신을 낳았고, 신의 막연한 호기심이 인간을 낳았다. 인간의 숙명을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그 숙명을 반하는 자는 인간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인간계에 사는 인간들에게 전해지는 구절.  세상에는 신과 인간이 있고, 신은 신계에, 인간은 인간계에 살아간다. 신은 전해지는 구절을 믿으며 자신들의 숙명을 다 하기 위해 인간을 관장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전해지는 구절을 다 믿지 않는다. 구절을 믿는 인간만이 신을 믿으며 숭배하며 살아간다.  운명의 세 여신이라 불리는 모이라이 3자매 중 셋째 여신인 아트로포스는 인간보다 신이 더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신을 믿지 않고, 심지어 신을 믿는 자들을 박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신들이 인간을 관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을 지배하고 굴복시켜 자신들의 존재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하지만 전해지는 구절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들은 아트로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트로포스에게 경고를 준다.  분노한 아트로포스는 신을 믿지 않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저 전해지는 말 뿐인 구절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인간을 관장하고 보살펴주는 신들 또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아트로포스는 모든 인간이 신을 믿지 않는 현재 세상은 잘못되었다며 다른 자매들에게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신들의 운명도 자신들이 정할 수 있다면 다른 신들도 자신의 말을 따라 인간을 지배 할 수 있고,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신을 모시며 신은 신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세상이 올 것이라고 설득하려 한다.  하지만 셋째 여신인 라케시스는 아트로포스의 계획에 반대하고, 아트로포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며 라케시스를 신계에서 추방시킨다.(첫째 여신인 클로토는 아트로포스와 같은 편인척 해달라는 라케시스의 부탁을 받아 아트로포스의 계획에 동참하는 척 하며 신계에서 추방당한 라케시스를 도와줌.)  클로토는 라케시스의 부탁을 받아 타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운명을 만들고, 라케시스는 그 운명들을 새로 태어나는 인간들에게 부여해 라케시스 일족을 만들어낸다.  라케시스는 아트로포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아트로포스와 다른 신들의 눈을 피해 라케시스 일족에 속한 인간인 척 하며 살아간다.  . 그러던 중, 라케시스족의 헤테라는 인간 남자인 베이브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헤테라가 타인의 운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베이브는 자신의 운명은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헤테라는 이를 받아들여 베이브의 운명을 일체 보지 않는다. 그러던 중, 헤테라는 베이브의 아이를 가지게 되고 헤테라는 라케시스 일족을 나와 베이브와 함께 살려고 한다. 라케시스 일족은 일족의 규율을 어기고 인간의 아이까지 가진 헤테라를 괘씸히 여겨 헤테라를 베이브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  수 개월 후, 헤테라는 베이브와 도망을 가려 하지만, 아트로포스에 의해 헤테라는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하지만 라케시스가 다친 헤테라를 구해 같이 도망친다.  베이브는 라케시스 일족이 헤테라를 죽인 것 처럼 꾸미는 아트로포스의 계획에 속아 라케시스 일족이 헤테라를 죽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결국 라케시스 일족을 멸족시킨다.  라케시스와 같이 도망친 헤테라는 베이브와의 아이를 낳고, 아트로포스에게 당한 상처가 심해 죽는다. 소멸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라케시스(신은 신계에서 살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다가 소멸함)는 마지막 힘을 짜내 헤테라의 아이에게 클로토에게 미리 부탁해 만들어진 '운명을 훔치는 자'라는 운명과 함께 행운을 부여하고, 이 아이가 부디 인간, 그리고 신들의 운명까지도 지배하려는 아트로포스의 계획을 막아주길 바라며 눈을 감는다. |
| **키워드** | 헤테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 라케시스 일족을 멸족시킨 베이브. 그러나 그 뒤에는 베이브를 이용한 아트로포스가 있었다. 사랑했지만 다르다는 이유로 남들에게 이용당한 헤테라와 베이브. 두 사람의 사이에 있었던 숨은 진실과 아트로포스의 목적이 라케시스 일족의 마지막 생존자인 주인공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
| **기획의도 및 주제** | |
| 라케시스 일족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주인공의 정체와, 헤테라의 죽음과 베이브 사이에 있었던 진실, 베이브의 뒤에 있던 흑막의 정체인 아트로포스의 정체가 점점 들어나게 된다. 유저는 스토리를 진행하며 숨겨진 진실과 반전을 알게 된다. | |
| **등장인물** | |
| 최소 주인공(성별미정), 헤테라, 베이브, 타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족 라케시스(자신의 미래는 볼 수 없음, 같은 일족끼리는 미래를 보지 않는 것, 자신의 일족이 아닌 인간과는 교류하지 않는 것이 규칙), 주인공을 키워준 부모, 모험 중에 만나는 사람들, 클로토(운명의 세 여신 중 첫째로, 인간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신이다.), 라케시스(운명의 세 여신중 둘째로, 인간에게 운명을 부여하며 주어진 운명을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행운도 함께 주는 신이다.), 아트로포스(운명의 세 여신중 셋째로, 인간의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다.) | |
| **게임과의 연결성** | |
|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보는 능력을 통해 본 자신의 미래를 한쪽에 놓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이 본 미래와는 달라져버린 현재 상황을 놓아서 달라진 요소를 찾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며 스토리를 진행한다. | |
| **시놉시스** | |
| 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은 라케시스 일족의 마지막 생존자이다. 하지만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자신이 보고 싶지 않아도 꿈을 꾸면 자신의 미래가 단편적으로 펼쳐짐, 자신이 본 자신의 미래는 피하려 해도 결국에는 똑같이 발생함)을 저주라 여기며 숨기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꿈에서 나오는 자신의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 점점 잦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주인공의 부모(주인공은 친부모인 줄 알고 있음)가 주인공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이야기하며 뒤틀리고 있는 미래를 바꾸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주인공은 라케시스 일족의 사명은 정해진 운명을 지켜내야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뒤틀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뒤틀리고 있는 운명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 | |